

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보건·복지 분과위원회 주요 제안내용

□ 남해군 장애인복지사업 개선 및 증진 방안

1. 소규모 식당 등 기준이하의 시설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요청
 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목록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 시설은 바닥 면적이 300㎡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으로 되어 있음.
 - 집 근처를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소규모 식당, 슈퍼마켓 등은 바닥 면적이 기준이하일지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고 해주기를 요청함.
2.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위반차량 단속 강화 요청
 - 남해읍에서는 주차단속도우미 4명이 주차안내와 주차위반 차량 계도를 하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된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위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.
3. 8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**경로주차공간 조성 검토** 요청
 - 타지자체의 경우 경로석이라고 해서 노인주차 공간이 있던데 남해군에는 없음. 대중교통이 열악한 남해에는 노인운전자가 많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노인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.
 - 남해군의 노인비율은 전국에서도 아주 높은 편이므로 주차공간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요청함.

4. 도로변 인도 장애인 편의시설 철저한 시공 요청

- 우리 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경우 전봇대나 가로등에 막히고 중간에 끊겨 단절되거나 울퉁불퉁하게 설치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니기 어려운 실정임.
-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, 어린이,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와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적정하게 하고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변 인도에 편의시설을 철저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.

5. 장애인을 위한 스쿠터 이용도로 개설 및 정비 건의

- 도마에서 남해읍으로 전동차가 주행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4차선 도로를 시속 10km로 주행하여 상당히 위험함.
- 현행법상 전동스쿠터는 인도 주행은 불가능하고 4차선 옆에 스쿠터 도로를 만들기는 무리가 있으니 경운기 등이 다니는 농로를 정비해서 스쿠터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함.